

# 나만의 처세술

-김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수기 입상작 - 장려상 : 최고의 처세술)

## ◎ 등장인물 :

- 청경(30세) : 주인공.
- 친구(30세) : 주인공과 함께 고시공부를 하다 포기, 취업을 준비하지만 여의치 않아 자신의 주관과 의지를 잠시 꺾지만, 결국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깨닫게 됨
- 어머니(60대) : 주인공의 어머니. 다른 어머니들처럼 그저 아들이 취업하길 원하고,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청렴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함
- 환경미화원(50대) : 청렴에 대한 의지나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인물
- 선배(30대) : 청경이 첫 입사한 회사의 선배. 그저 남들이 일하듯 직업윤리나 청렴에 대한 자각이 없음
- 과장(40대) : 청경이 첫 입사한 회사의 과장. 처세를 강조하며, 편법적인 일처리를 당연시 함
- 직원(30대) : 사성전자의 면접원 관리자.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전형적인 인물상
- 감독관(50대) : 사성전자의 팀장. 현명함을 갖춘 인물, 결국, 주인공을 채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이학벌(20대 후반) : 학벌이 매우 뛰어나지만, 한계적인 사고 방식을 지님
- 황연줄(20대 중반) : 연줄이 있어 자신만만해 하는 인물.
- 노가다1(40대) : 세상에 대한 걱정이 많은 인물.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할 줄 앎
- 노가다2(40대) :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때의 실수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짐. 과거를 후회하는 인물.
- 노가다3(40대) : 노가다1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가능한 인물.

## ◎ 시놉시스

청경은 고시를 준비했지만 여의치 않아, 취업 활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취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고시 공부만 했던 터라, 일반 기업체에서 원하는 스펙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러던 차에, 같이 고시 공부를 하던 친구가 취업 때문에 자신의 평소 신념을 잃고, 연줄에 기대는 모습을 보고 한 편으론 세상의 고달픔을 깨닫고, 동정하기도 하지만, 더더욱 자신의 도덕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청경은 한 중견 기업에 합격한다. 어느 대기업만큼이나 돈을 많이 주긴 하지만, 하는 일 자체가 편법적인 일이라 고민하던 청경은, 취업을 포기한다. 그로 인해 어머니와 다투기도 하지만, 그것이 옳은 길임을 확신하기에 주인공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말한다.

입사 원서를 넣으며 남는 시간엔 막노동판을 전전하던 청경은, 그 곳에서 어느 한 노가다꾼을 만난다. 그 노가다꾼은 젊을 적,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 입사했지만 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감옥에까지 간 인물. 청경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청렴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게 된다.

그러던 차에 날아온, 사성전자 면접 전화. 청경과 어머니는 펴 듯 기뻐하지만, 현실적으로 합격은 무리라는 생각에 주인공은 경험차 면접에 응하기로 한다. 면접장에서 청경은 다른 지원자들의 스펙과 연줄에 주눅 들기도 하지만, 소신껏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관과 기업관을 밝힌다. 여지없이 면접에 떨어졌을 거라 생각한 청경은 친구와 만나,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말을 주고받지만, 뜻 밖에 날아온 최종 합격 전화에 청경은 크게 기뻐한다.

청경은 결국, 최고의 처세술은 연줄이나 편법에 응하는 것이 아닌, 법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행동하는 것임을 몸소 깨닫는다.

1장.

무대 위엔 포장마차 모양의 세트가 있고, 청경과 친구가 객석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신다.

친구 :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청경 : 글썸다, 언제까지 계속 이것만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마 ... 취업 준비를 해야겠지?

친구 : 하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청경 : 글치. 계속 고시만 준비할 수는 없잖아. 우리 이제 서른이야. 어서 직장을 구해야지.

친구 : 근데, 너 혹시 그 얘기 들었어?

청경 : 무슨 얘기?

친구 : 경섭이 취업한 얘기.

청경 : 경섭이? 학점 2.0에 토익 500점 나오는 그 경섭이? 개가 취업했다고?

친구 : 어, 그 얘기 못 들었어?

청경 : 말도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스펙을 가지고 취업 하나? 개가 들어간 회사가 어딘 데?

친구 : 사성전자.

청경 :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친구 : 나도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술잔 하나 깬다.

청경 : 말도 안 돼.

친구 : 말 돼.

청경 :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사성전자가 왜 사성전잔데? (자리에서 일어나 관객을 향해 외친다) 사(四), 성(星!) 별처럼 빛나는 학벌, 토익, 인턴경험, 수상경력, 이 네 가지를 갖추고도,

친구 : (한 글자씩 운을 띄운다) 전!

청경 : 전전공공하며 고민하다가 겨우 용기 내 지원할까 하다가도,

친구 : 자!

청경 : 자포자기하며 취업 원서 찢어버리는 곳이 바로 사성전자잖아. (다시 의자에 앉는다)

친구 : 그렇지.

청경 : (잠시 고민하다) 혹시 경섭이 개가 알고 봤더니, 10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의 천재, 뭐 그런 거야?

친구 : 아니, 그거보다 더 대단한 스펙이 있어.

청경 : 뭐? 그럼 혹시 10개 국어는 기본에, 스마트폰 관련한 특허가 있거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그래밍 기술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친구 : 그건 짬도 안 되지.

청경 : 밤새 술 먹다 수업시간은 죄다 빠지고, 시험시간마저 깜빡하던 한심한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란 게 대체 뭘데?

친구 : 그 새끼... 삼촌의 이종사촌이 사성전자 무슨 팀장이랑 초등학교 동창이래.

청경 :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친구 : (술잔을 떨어뜨린 청경을 바라보며) 너, 술잔 너무 자주 떨어뜨린다.

청경 : 이 타이밍에 놀라는 게 정상 아니냐?

친구 : 아니, 당연한 얘긴데 뭐.

청경 : 그게 뭐가 당연해!

친구 : 넌 아직도 그렇게 세상을 모르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맥만큼 더 대단한 스펙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단군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몰라? 흥익인간! 넓을 흥 자에, 이익 익 자. 사람은 누구나 널리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야.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긴한 걸 안 써먹어? 그건

바보지. 우리 옛 속담에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도 갚는다고 했어. 말만 잘 하면, 큰 부탁도 들어준다는 말이야. 그걸 다시 말하면, 말도 잘하고, 기분도 좋게 해주고, 급할 때 쓰시라고 비상금으로 봉투 하나만 챙겨주면, 취업 같은 사소한 부탁 정도는 쉽게 들어준다는 말이야. 오케이? 옛 성현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마라.

청경 : 넌 고시 공부하다가 궤변만 늘었냐? 말도 안 되는 말을 잘도 하네.

친구 : 지금은 그게 말이 되는 세상이야.

청경 : 아니, 난 인정 못 해.

친구 : 네가 인정을 하던, 안 하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너의 인정은 좁쌀만큼도 중요하지 않아.

청경 : (조용히 술잔을 들이킨다)

친구 : 이 세상이 네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알다시피, 세상이라는 시스템은 누구 하나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벨이 울리자 발신자를 확인하곤, 번쩍 일어나 핸드폰을 받는다)

어, 그래그래, 웬일이야? 응? 그렇지. 나도 알지. 그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럼. 그래, 몇 시? 내일 새벽 5시?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라고. 어, 어, 그래. (전화를 끊는다)

청경 : 누구냐? 누구 전화데 자리에서까지 일어나 받아?

친구 : 경섭이.

청경 : (놀라며) 경섭이? 그 재수탱이?

친구 : 아니, 나의 친구 경섭이.

청경 : 너 개랑 전혀 안 친했잖아. 아까까지 같이 씹을 땐 언제고.

친구 : 내가 씹었지, 난 안 씹었다. 그리고 고시 접으면서, 친해지기로 다짐했어. 이젠 친구야.

청경 : 왜?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친구 : 항상 일정하게 떡고물이 떨어진다면, 트럼프라도 친구 먹을 수 있지.

청경 : 그래서, 그 자식이 뭐라는데?

친구 : 내일 모닝콜 해 달래. 회사에서 등산 가는데 차로 선배들을 픽업해줘야 한다더라.

청경 : (어처구니없이 친구를 바라본다)

친구 : 그렇게 보지 마라.

청경 : 내가 널 어떻게 보고 있는 지는 아냐?

친구 :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

청경 : 고시 붙으면 온갖 사회의 불합리한 것들을 제 손으로 고칠 듯 나대던 네가, 이런 식으로 변하다니. 참, 세상이 무섭네.

친구 : 아니, 세상은 그대로야. 취업이 무서워 진거지.

청경 : 난 너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친구 : 아무 말도 하지 마.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며) 그건 그렇고, 계속 마실 거야?

청경 : 그럼? 넌 안마실거야?

친구 : 그만 집에 가야지. 내일 5시 전에 일어나려면.

청경 : (말없이 술잔에 술을 따른다)

친구 : 난 그만 간다. 적당히 마시고 집에 들어가.

친구가 퇴장하고, 조명이 핀 조명으로 바뀌며 '청경'을 비춘다.

청경은 소주 한 잔을 들이키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객을 향해 말한다

청경 : 제 친구가 원래 저런 놈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걸 추구하던 녀석이었는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세상이 제 친구를 저렇게 만든 걸까요? 친구 말대로, 어찌면 세상은 아무 죄가 없는 걸지도 몰라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든 우리 사람들이 잘못

한 거겠죠. 돈이라는 게, 그리고 취업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도 변화시키네요.

때마침 환경 미화원이 빗질을 하며 '청경'의 주변을 지나가고, '청경'은 그 모습을 찬찬히 바라본다.

청경 : (여전히 관객을 바라보며 말한다) 저렇게 새벽에도 열심히 일하시며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환경 탓만 하는 건 잘못된 거겠죠. 네, 맞아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취업이 아무리 쉽지 않다 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분명 잘못된 거예요.

청경은 말을 하다말고 환경 미화원을 바라본다. 환경 미화원은 주위를 몰래 살피며, 불을 피워 모아놓은 쓰레기를 소각하기 시작한다.

청경 : (환경 미화원의 행동을 바라보며) 어... 어... 저러면 안 되는데.

(난처하다는 듯이 잠시 고민하다, 이내 다짐한 듯 환경 미화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다)

저기 아저씨, 쓰레기들을 봉투에 담아야지, 그걸 그냥 태우면 어떡해요?

환경미화원 : (당황하며) 누구...세요? 혹시, 시청에서 나오신 분인가요?

청경 : 저요? 아닌데요.

환경미화원 : 그럼 혹시, 동사무소에서... ?

청경 : 아닌데요.

환경미화원 : (한결 당당해진 표정으로) 그럼 뭐하시는 분이당가?

청경 : 지나가는 행인인데요.

환경미화원 : (황당하다는 듯) 뭐? 지나가는 행인? 장난 혀? 근디 왜 남의 일에 참견이여?

청경 : 아니, 아저씨. 쓰레기들을 이렇게 태워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미화원 : 아따, 고 머시마 드롭게 짜증나볼게 허네.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팽개치며 쫄쫄하게 경에게 다가간다)

누가 청소에 대해서 뭘 아냐, 잉? 청소가 뭘지, 어뜨렇게 해야되는 지는 아냐?

청경 : 당연히 알죠. 최소한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버려야죠. 그냥 태워버리면 환경이 망가지잖아요.

환경미화원 : 우리가 이 쓰레기들을 치울라치면 봉투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루에 업체에서 받는 봉투가 몇 개 줄은 알아?

청경 :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환경미화원 : 뭐여? 봉투 몇 개 받는 게 중요치 않다고? (손가락질을 하며) 그럼 뭐가 중헌디? 잉? 그거 말고 뭐가 중허냐고!

소리 없이 경과 환경미화원이 마음으로 투탁거리는 연기를 한다. 잠시 후 조명이 조금씩 어두워지다가 이내 꺼지고, 나레이션이 들려온다. 나레이션은 미리 청경의 목소리로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이다.

나레이션 : 이 날은 제가 고시공부를 때려 친 날입니다. 그 날, 저는 몇 가지 사실을 새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 취직은 그런 세상보다도 더 만만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공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취직의 고단한 과정보다도 더욱 힘들다는 것.

하지만 그에 반해 제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다짐도 하나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지켜나갈 가치가 있다는 걸요.

그런데, 언제까지 제가 이 다짐을 지켜나가게 될 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2장.

무대가 암전된 상태에서 두 사람의 통화 소리만 들린다.

청경 : 여보세요?

여자 : 안녕하세요, 룡롱 컨설팅인데요. 김청경씨 핸드폰 맞나요?

청경 : 네, 제가 김청경입니다.

여자 : 예, 이번에 저희 회사에 지원해주셨는데, 최종 합격되셔서 이렇게 전화 드립니다.

청경 : 네? 진짜요?

여자 : 네, 별달리 준비할 건 없고요, 내일 모레 첫 출근이니까, 늦지 않게 인사과로 오시면 되요.

청경 : 아, 네, 감사합니다! 아자!

무대가 밝아오면 시끌벅적한 회사 사무실에 배우 몇몇이 정신없이 일하고 있고, 무대의 중앙 우측에 김청경이 바짝 긴장한 상태로 서 있다.

선배 : 저, 김청경씨?

청경 : (잔뜩 긴장한 채 큰 소리로) 예, 제가 신입사원 김청경입니다.

선배 : 여긴 군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청경 : (군대식으로) 잘 못 들었습니다.

선배 : 군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하라고요.

청경 : 네, 알겠습니다.

선배 : 보다시피(한 손으로 바쁜 사무실을 가리킨다) 우리 회사는 그렇게 직원 수가 많지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바빠요. 대신 월급은 어느 대기업 못지않게 주고 있으니까, 그 점에서 위안을 삼으면 되요.

청경 : 네.

선배 : 그래서 신입사원에게 따로 성대한 환영회나, 오리엔테이션 같은 건 못 해줘요. 이해하죠?

청경 : 그럼요, 이해합니다.

선배 : 일단 수습기간은 일주일이고요, 그 기간 안에 회사 손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면 고용계약은 해지될 수 있어요. 뭐, 법대 나오셨다니, 그 정도는 아시죠?

청경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 : 다행이네요. 회사에 법대 나오신 분은 몇 분 있는데, 그렇게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그 래도 청경씨는 사법고시 1차까지 붙었다고 하던데?

청경 : (겸연쩍어하며) 거기까지입니다.

선배 : 그래요, 어쩌면 이것도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업무를 배우기 전에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혹시, 어디까지 알고 오셨죠?

청경 : 건설 관련 컨설팅을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배 : 네, 맞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는 건설업을 하려는 신생 회사의 등록과 필요한 절차들을 대행해주는 회사예요. 알다시피,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건설법에 규정된 법적 등록 기준을 맞춰야 하 잿어요.

청경 : 네, 그렇죠.

선배 :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막 건설 관련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알 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도와주는 거죠.

청경 : (고개를 끄덕인다)

선배 : 그 중에서 우리 회사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본금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회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청경 :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배 : 제 말을 찬찬히 들어봐요. 알았죠?

청경 : 네, 경청하겠습니다.

선배 : 그래요, 청경씨, 청경하세요. 착하하하 (배꼽을 잡으며 오버하며 웃는다)

청경 :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눈치껏 선배를 따라 오버해 웃는다)

선배 : 청경씨, 이제 봤더니 좀 센스가 있네?

청경 : 네, 그래서 한 때 제 별명이 '웃음 주는 청원경찰'이었습니다. 착하하하 (오버하며 웃는다)

선배 : (정색하며) 암튼, 잘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으세요.

청경 : (무안해하며, 죄송한 표정으로 선배에게 절을 하곤 공손하게 귀를 기울인다)

선배 : 자본금 등록기준이란 건, 일종의 규제예요. 건설업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두 손으로 큰 원을 그리며)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큰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청경 : (뭔가 불편한듯한 표정으로) 네, 그건 그렇습니다.

선배 : 그게 바로 현실의 문제점인거예요. 그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사람들의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 창조를 위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정부가 그런 사람들에게 자본금 등록기준이라는 올라미를 씌우고는, 마음껏 하늘을 날아보라고 역설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청경 : (뭔가 할 말이 있지만 애써 참는 듯 한 표정을 짓는다)

선배 : 그래서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당신들의 올라미를 살짝 풀어 줄테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음껏 하늘로 날아라' 라고. (파닥이는 시늉을 하며)

청경 : (선배를 따라 파닥이는 시늉을 따라하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선배 : 처음엔 이렇게 파닥이는 회사가 나중엔 펄럭이는 백조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 분들의 사업과 꿈과 미래도, 그리고 우리 회사도 덩달아 조금은 사정이 나아지겠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청경 :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선배 : 그럼,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했네요. 아,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

청경 : (뭔가 또 남아 있는듯한 표정을 짓는다)

선배 :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뭐라고 생각해요?

청경 : (잠시 고민을 하다 자신 없는 말투로) ...자본주의요?

선배 : 맞아요. 자본주의. 인류가 만든 가장 최첨단의 고도화된 시스템.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합리적이고 원초적이며 스펙타클한 하이브리드 힘이 솟아 리오베이비 시스템! 그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청경 :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선배 : 그 자본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뭐냐면, 바로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주면, 넌 나에게 저걸 줘야한다, 라는 거죠. 물론, 이것과 저것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교환 비율이 달라져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회사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빌려주는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 그 돈이 꿈과 희망과 미래와 영광과 번영과 광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빌려주는 돈의 가치는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청경씨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일거예요. 이자, 바로 이자! 그래요, 우린 이자를 받아요. 그들의 꿈과 희망과 미래와 영광과 번영과 광명을 대신할 만큼 큰 이자는 받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니깐요. 얼마 안 받아요, 겨우 (작은 목소리로 '월 20') 퍼센트 밖에.

청경 : 네? 잘 안 들리는데요?

선배 : 못 들었어요? 우리가 받는 이자는 (작은 목소리로 '월 20') 퍼센트예요.

청경 : 혹시 일 년에 20퍼센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배 : 아뇨. 월 20이요.

청경 : (화들짝 놀라며) 한 달에 20퍼센트요?

선배 : 왜 놀래요? 누가 보면 고리대금업자랑 대화하는 줄 알겠어요.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는데요?

청경 : (당황하며) 아, 아니요, 그런 의미로 놀란 건 아니고. 제가 상상했던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요.

선배 : 상상했던 범위요? (고개를 가로저으며) 신입사원이 왜 이렇게 패기가 없어요? 신입사원이면 저 하늘의 별도 씹어 먹을 만큼 패기 있고 과감해야죠.

청경 :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배 : 그래요, 그러면 일단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수습기간이니까, 다른 건 하지 말고 저 캐비닛 안에 있는 서류들을 보면서 우리 회사의 문서 작성 서식을 익히고, 그동안 해왔던 업무 처리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요.

청경 : (풀이 죽은 표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배우들은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모습을 연출하고, 청경은 의자에 앉아 잔뜩 불편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바라본다. 주변 조명은 어두워지고, 오직 핀 조명만이 그런 청경을 비춘다. 그때,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노래가 흘러나온다)

노래 :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 나를 꺾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하나가 남았네.'

' ~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부분에서 노래 소리가 작아지며 끝나고, 나레이션이 들려온다.

나레이션 : 저는 일주일간의 수습기간동안 각종 서류들에 쳐 박혀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제 마음은 수습기간 첫날과 마찬가지로 합법과 불법사이에서 그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고시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니고 있던 법을 준수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고 싶다는 저의 작은 꿈은, 어쩌면 수습기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후 아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릴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몹시 두렵습니다.

청경이 의자에서 일어선다

나레이션 : 법과 원칙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저의 작은 다짐. 아직은 그 다짐을 꺾을 수 없습니다.

주변이 환해지며 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청경 : (과장의 자리로 걸어가 꾸벅 인사한다) 저, 과장님.

과장 : (열심히 서류를 보다, 청경의 부름에 고개를 들어 쳐다본다) 응? 아, 내일이면 우리 식구가 될 청경 씨, 무슨 할 말 있어?

청경 : 네,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과장 : 그래? 여기서 말하기 조금 곤란한가?

청경 : 상관은 없습니다만...

과장 : 아냐, 그냥 자리를 옮기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중앙으로 나와 먼 산 바라보듯 관객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선다. 청경도 그 옆에 나란히 선다) 그래 말 해봐. 무슨 일이야?

청경 : (조금 고민하다, 마음을 정한 듯 굳은 표정으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컨설팅 업무 중에 '자본금 지원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회사....

과장 : (말을 끊으며) 그런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예금거래 실적을 증명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맞추는 업무가 불법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청경 : (조금 뜸을 들이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 : 그래서? 불법이니 그런 업무는 하지 말라고?

청경 :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듣고만 있다)

과장 : 잘 들어. 불법이란 법을 어길 때나 쓰는 말이야. 우리 회사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해? 가만히 우리가 하는 업무를 하나하나 생각해 봐. 우리가 법을 어기고 있어? 아니지. 우린 그저 법이 말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 안에서 행동해. 그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편법이라고 부르는 거지.

청경 :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편법이 불법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법에서 명시해 놓은 이유는,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건설 공사를 했을 때 부실 공사와 임금 체불 등의 위험이 현저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을 없애고자 만든 법적 규제가 자본금 등록기준이구요.

과장 : 답답한 친구네. 이 봐 청경씨, 내가 인생 선배로서 한 마디 할 테니 잘 들어.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처세라는 말이 있어. 그 말을 한 자, 한 자 해석해보면, 세상 속에 사람들과 함께 머무른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 줄 알아?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야. 자네 혼자 고결하고 깨끗하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자네가 진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독선이고, 자만이야. 이 세상 그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자네도 이 나이쯤 먹었으면 깨달았을 것 아닌가? 자본금 등록기준? 그래, 어쩌면 자네 말대로 편법이 불법보다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런데 뭐? 그게 뭐 어때서? 만약 이 세상에서 편법이란 게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쯤 증기기관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을 거야. 편법을 우습게보지 마. 생산성의 동력이 바로 편법이고, 편법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혁을 해 왔으니까.

나레이션이 시작되면, 과장과 청경은 나레이션의 내용에 맞춰 소리 없이 마임으로만 연기한다.

나레이션 : 이후로도 과장님은 절 계속 설득하려 요즘 취업의 어려움이나, 편법의 합리성에 대해 말을 하셨지만, 한 번 내린 저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수습 마지막 날에 과장님께 해고 통보를 받았습시다. 혹시나, 갈 곳이 없으면 오라는 말과 함께.

나레이션이 끝나면 과장은 퇴장하고, 조명은 핀 조명으로 바뀌며 홀로 서 있는 청경을 비춘다.

청경 : (관객을 향해) 제가 혹시 착각을 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편법이 사소한 불법이 판치고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중학교 도덕시간 때 배웠던 것처럼,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데,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가 혹시나 잘못된 걸까요? 만약... 만약,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전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많이 흔들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진짜 모르겠어요.

암전되며 청경은 퇴장한다.

3장.

청경의 집, 청경은 불편한 자세로 티비를 보고 있다. 청경의 어머니는 그런 청경을 못 마땅한 눈으로 보고 있다.

어머니 :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티비가 재밌냐?

청경 : 네? 아뇨, 요즘 면접에 가면 시사 상식을 많이 물어봐서, 이런 토론 프로그램들은 챙겨봐야 해요.

어머니 : 너, 광식이 알지?

청경 : 광식이요? 모르겠는데.

어머니 : 있어, 엄마 친구 아들.

청경 : 아, 엄마 친구 아들.



어머니 : 갠 토론 프로그램이니 그런 거 보지도 않고 딱 하니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청경 : (애써 아무렇지 않아하며) 하하하, 대단하네요. 요즘에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니 : 그 뿐인 줄 아냐? 얼마 전엔 첫 월급 타서 지어미한테 옷도 사줬다더라.

청경 :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 효자네요.

어머니 : 그럼, 효자지, 효자. 요즘 세상에 취업만큼 큰 효도가 어디 있니?

청경 :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도 곧 취직할거예요.

어머니 : 그 돈 많이 준다면 회사에 들어갔다가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온 놈이 무슨 재주로?

청경 : 그건 말씀 드렸잖아요. 그 회사가 저랑 너무...

어머니 : (청경의 말을 끊으며) 야 이놈아, 세상에 유도리 없이 일하는 사람들 봤냐? 사람이 왜 사람이지? 응? 다들 사정이 있고, 살다보면 힘든 일도 있는 법이고. 그럴 땐 서로 돕고, 가끔 눈도 감아주고 하면서 사는 거지. 너처럼 그렇게 매몰차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이놈아.

청경 :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어머니...

어머니 : (청경의 말을 또 끊으며) 알아? 아는 놈이 그런 짓을 해? 너, 가만 생각해봐. 네 나이가 이제 서른이야, 서른. 니 아버지가 너 중학교때 돌아가시고, 나 혼자, 이 애미가 악착같이 일하면서 너 대학 공부까지 시켰어. 그렇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너 그때 이 애미한테 뭐라고 했냐? 응? 무슨 고신가 머신가 한다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달라고 했어, 안했어? 내 나이 환갑에 남의 집 식모살이하면서 그렇게 5년이나 네 뒷바라지 했다. 난 솔직히 네가 공부 그만두고 취업한다고 했을 때 뿔 듯이 기뻐다. 근데, 힘들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일주일 만에 때려 쳐? 니가 이놈아 양심이 있냐? 없냐?

청경 : (무릎을 꿇으며)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 탄 소리 하지 말고, 거기 사장한테 얼른 전화해서 잘 못했다고 빌고 내일부터 당장 회사 나가.

청경 : 그럴 순 없어요.

어머니 : 왜, 자존심 상해? 나이 서른 먹고 남한테 머리 숙이기가 싫어? 그래서 그러냐?

청경 : 아니에요. 그런 거.

어머니 : 니가 진정 이 어미를 위한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당장 회사에 가. 무릎 꿇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들어가 이놈아 (오열하며 운다)

청경 :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를 따라 같이 운다)

무대는 울고 있는 모자를 남겨두고 천천히 암전된다

4장.

무대 중앙엔 노가다꾼들이 밥을 먹고 있다. 청경은 안전모를 쓰고, 목엔 수건을 걸친 채 무대 후면 좌측에 전화통화를 한다.

청경 : 여보세요? 아, 네, 전 김청경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서류전형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어서 이렇게 전화 드리는 겁니다. 네, 김청경이요. 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청경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곤 무대 중앙으로 와 앉아 천천히 식사를 시작한다.

노가다1 : (막걸리 한 잔 들이켜고 난 후) 여긴 공사가 언제쯤 끝나나?

노가다2 : 언제 끝나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노가다1 :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요즘은 보름이면 웬만한 건 다 끝나잖아. 그럼 다른 곳을 또 알아봐야 하니까.

노가다3 : 걱정도 많네. 어딘가에서 또 사람 끌어 모으겠지 뭐.

노가다1 :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아.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된다잖아. 그래서 죄다 공사판으로 몰려온다고 하드만. (대사를 하며 결눈질로 청경을 바라본다. 그 모습에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청경을 본다)

노가다1 : 저, 학생?

청경 :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깜짝 놀라며) 네? 저요?

노가다1 : 근데, 학생 맞아?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청경 : (쓱쓱하게 웃으며) 졸업했으니까 이제 학생은 아니에요.

노가다2 : 넌 뭘 그런 걸 물어보냐. 노가다 판이 사람 가리디? 그냥 아무나 와서 일하면 되는 거지.

노가다3 : 근데, 나이도 젊고 좀 공부도 한 사람 같은데, 왜 여기서 일하는 거야? 취업 안 해?

청경 : 그게 쉽지 않네요.

노가다1 : 아까 내가 말했잖아. 요즘 취업이 장난 아니라니까.

노가다2 : (노가다1을 흘겨보며) 아, 그만해. 젊은 사람 불편하겠네.

청경 : 아, 아니에요.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노가다3 : 그래, 그냥 편하게 생각해. 아직 나이도 젊은데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될 뿐이지, 곧 될 거야.

노가다1 :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 요즘 취업이 정말 쉽지 않다니까.

노가다2 : (노가다1을 가리키며) 넌, 네 걱정이나 해. 더럽게 오지랖 넓네 진짜.

청경 : 아, 정말 괜찮아요. 괜히 저 때문에 싸우시지 마시고, 막걸리나 한 잔씩 들이켜세요. 제가 한 잔씩 따라 드릴게요.

노가다3 : 난 흔들어서 (잔을 돌리며, 막걸리 병을 바라본다)

청경 : (살짝 웃으며) 아, 네.

노가다2 : 이 기회에 젊은 사람이 따라주는 술도 먹어보네, 하하하.

청경이 모두에게 술 한 잔씩 돌리고, 자기 잔에도 술을 따른다.

노가다2 : (한 잔 들이켜고) 근데, 이런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보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있나봐?

청경 : 아, 조금 전예요? (쓴웃음 지으며)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기에 제가 전화해보니까, 역시나 안 됐다고 하네요. 하하.

노가다3 : 이번엔 안 될 수도 있지. 다음번엔 되지 않겠어?

청경 : 사실, 얼마 전에 취업이 되긴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고 나왔어요.

노가다3 : 응? 취업이 됐는데 그만 났다고?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만 났어?

청경 : 사실은 그게...

청경과 노가다1, 2, 3은 마음으로 대화하는 연기를 하고, 5초간 '똑딱'거리며 초침이 움직이는 음향 효과가 무대에 울려 퍼진다.

5초 후, 강한 드럼 킥 소리와 함께, 노가다 1, 2, 3이 깜짝 놀라며 뒤로 넘어진다.

노가다1 : (믿을 수 없다는 듯 청경을 바라보며) 진짜? 진짜 그 이유로 그만 둔거야?

노가다3 : 아, 미쳤네, 미쳤어. 제 정신이 아니야.

노가다2 : 조용, 조용! 청경아, 딸꾹, 노가다 일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딸꾹, 우습게 듣지 말고, 내가 네 형뻘이니까, 딸꾹, 한 마디만 할게.

노가다3 : (손가락으로 노가다2를 가리키고, 노가다1을 바라보며) 저거, 저거 또 취했다.

청경 : 아,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노가다1 : 아, 거 새끼, 술도 못 마시는 게 또 저러네. (안절부절못하며 노가다3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듯이 서로 눈짓한다)

노가다3 : (노가다2를 일으켜 세우려 하며) 야, 그만 하고, 저기에 가서...

노가다2 : (노가다3을 뿌리치며) 비켜, 자식아. (청경을 바라보며) 동생, 내가 말이야, 오래 살지는 않았어.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가슴 속에 늘 품고 살고 있거든.

노가다 2가 자리에서 일어나 관객을 향해 서서 말한다.

노가다 2가 대사를 시작하면, 노가다1과 3은 듣기 싫다는 듯, 혹은 또 시작했냐는 듯 고개를 도리도리 젓는다.

노가다2 : 동생아, 내 나이가 올해 마흔이야. 동생이 보기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노가다 판에서 일한 걸로만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 나도 한 때는 동생처럼 사회에 나가서 산업일꾼이 되어 번듯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었어. 저 놈들은 안 믿지만, 내가 이래봐도 미국의 (발음을 굴리며, 이하 영어 발음이 나올 때마다 혀를 굴려 발음한다)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에서 *소셜 사이언스*를 전공한 엘리트야. 안 믿기지? 하긴, 저놈들도 안 믿는 얘기를 오늘 처음 본, 동생이 믿을 리 없지. 안 믿기면, 그냥 속는 셈 치고 한 번 들어봐.

조명이 암전되고, 핀조명이 노가다2를 비춘다.

노가다2 : 내가 처음 한국에 와서 들어간 회사가 이름도 그 유명한 알지전자야. 그 땐 나도 자신감에 넘쳤지. 그 당시엔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나름 인정받으며 입사 했었어. 그 때 내가 하는 말았던 일은 외국 바이어와의 통역이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지. 미국물 먹은 사람이 흔치 않을 때이기도 하고, 나처럼 영어에 능숙한 사람이 없던 때이기도 했으니까. 암튼, 그 때 동유럽의 어느 상사와 계약을 추진할 때였는데, 아니 이놈들이 자꾸 값을 깎으려고 들더라고. 제조원가에 마케팅 비용까지 합치면, 냉장고 한 대당 마지널 라인이 300달러야. 그리고 우린 360달러에 수출하던 때고. 근데, 개네들이 자꾸 340 달러에 달라는 거야.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같이 갔던 선배가 그럴 거면 그냥 계약은 없던 일로 하자 말하고, 우린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지.

핀조명의 범위가 넓어지며, 모여 앉아있는 청경, 노가다1, 3을 비춘다.

노가다1 : (맞장구치며) 거, 도둑놈들이네. 아주 잘했다, 잘했어.

노가다3 : (노가다1을 구박하며) 넌 맨날 듣는 얘기가 지겹지도 않나?

노가다1 : 아니, 틀린 말은 아니잖아.

노가다2 : (버럭 화를 내며) 거, 조용해, 이놈들아. 말이 끊기니까 어디까지 말했는지 헛갈리잖아.

청경 :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지, 까지 말씀하셨어요.

노가다2 : 그래, 암튼. 흠흠. 그때, 나랑 선배는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지.

핀조명이 다시 노가다2만을 비춘다.

노가다2 : 근데, 다음날인가 그 놈들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 온 거야. 다시 한 번 자리를 만들 수 있겠냐고. 선배는 아무렇지 않은 듯 흔쾌히 오케이 하더라고. 요즘 말로 치면, 밀당이지, 밀당. 원래 그런다고 하더라고. 나야, 뭐 신입이니까 잘 몰랐지만 말이야. 암튼, 나랑 선배는 다음날 약속장소로 갔어. 그랬더니만, 그 놈들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 웬지 자신감이 차 있는 얼굴이랄까? 그래서, 난 생각했지. 그냥 이놈들이 360달러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 계약은 이렇게 무탈하게 성사되겠구나, 하고. 근데, 이놈들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완전 헛다리를 짚었던더라고. 그 놈들이 뭐라고 하나면, 대당 330달러에 계약 하자는 거야. (어처구니 없다는 제스처를 하며)

어처구니없지? 그래서, 난 선배를 봤지. 근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선배도 씨익 웃는 거야. 난 내가 뭔가 잘못들은 건가 했어. 분명 그 놈들은 쓰리씨리라고 했거든. 어제까지만 해도 쓰리포리라고 하던 놈들이 말야. 그리고 선배도 그 정도 영어는 알아들을 실력이 됐거든. 그래서 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걸 확신했지. 아니나 다를까, 선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침을 꿀꺽 삼키곤 목소리를 깔며) '대당 얼마 줄 거냐고 물어봐.'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분명히 330 달러를 준다고 했는데, 왜 또 물어볼까? 그래도, 일단 선배가 시킨 거니까,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 놈들이 그러더라고. (손가락으로 일곱을 가리키며) 7달러라고. 그 때 느낌이 딱 왔지. 아, 이 선배가 뒷거래를 하려하는구나. 심장이 막 요동치더라고. (고뇌하며 혼잣말하듯) 이게 그 말로만 들던 커미션이라는 거구나. 난 어떡해야하지? 그냥 모른척 해야하나? 아니면, 선배한테 그러지 말라고 설득해야하나? (다시 관객을 바라보며) 내 결론은, 그냥 선배가 시키는 대로 하자, 였어. 난 아직 그 쪽 세계의 생리도 모르는 초짜였고, 선배한테 무슨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핀조명에서 전체 조명으로 바뀐다.

청경 : (조심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가다2 : (다시 자리로 가 앉으며) 어떻게 되긴, 5000대를 그렇게 팔았지.

노가다1 : 황당한 건, 그게 회사 감사팀에 걸렸다는 거야.

노가다2는 괴로운 표정으로 막걸리를 들이킨다.

노가다3 : 더 황당한 건, 그 선배라는 놈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뭇다는 거지. 자기는 영어를 할 줄 모르고, 모든 건 전부 이 자식이 벌인 일이라고.

노가다2 : 더 더욱 황당한 건 뭐냐면, 난 그 돈 만져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금융 실명제 같은 게 없었거든. 이 선배라는 새끼가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로 돈을 받았더라고. 난 그 덕분에 독박 쓰고 경제사범으로 감방에 갔다 왔지.

청경 : 그 선배라는 사람이 대신 계좌를 만들었으면, 은행에 CCTV 기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가다2 : 이십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땐 일반 은행에 CCTV같은 게 없었다고.

(막걸리를 한 잔 더 들이키며) 내가 후회하는 건, 그 때 그 새끼가 뭔가 일을 꾸민다고 생각했을 때, 나 역시 아무렇지 않게 동조했다는 거야. 분명, 그 새끼가 나쁜 짓을 벌이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단지 그 세계에 적응하겠다는 이유로, 으레 그래왔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그냥 넘겨버린 게 정말 후회가 돼. 그렇게 감방에 갔다 온 다음엔 일반 기업에 원서는커녕, 잡부로도 안 써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노가다 판이나 전전하고 있는 거고. 동생!

청경 : 네.

노가다2 :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지? 그런 회사를 집어 치운 건 정말 잘 한 거야. 만약, 또 다시 그런 결정을 내릴 순간이 온다 해도, 동생은 똑같이 그런 선택을 해야 해. 그게 옳아.

청경 : (뭔가 굳은 다짐을 내린 표정으로) 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요. (약간 풀이 죽은듯한 표정으로) 사실, 그 일로, 어머니랑 한바탕 했어요. 사실, 전 집안의 장남이자, 외동인데, 절 저희 어머니 홀로 여태껏 키우셨거든요. 그 동안 고시 공부한다고 이십 대를 그냥 보내버리고 겨우 취업을 했는데, 그것마저 일주일 만에 때려치웠으니, 어머니께서 많이 상심 할 만 했죠.

노가다2 : 어머니도 나중에 알게 되실 거야. 동생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걸. 그러니 기운 내. 사회가 아무리 험하고, 취업하기는 그보다 더 힘들고 고된 일이라지만,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야. 사람은 말이야, 거대한 강물처럼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처음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고도 무턱대고 가긴 하지만, 어떤 용기 있는 사람 하나가 과감하게 옳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 뒤의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를 좇아가곤 하지. 그게 사람 이야. 그러니까, 동생, 기운 내. 그리고 자네의 신념대로 살아.

청경 : 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제 주변에 형님처럼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많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제야 좀 힘이 나요. 정말 고마워요

청경은 흐느껴 울고, 무대는 암전된다.

5장.

무대의 조명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청경의 말소리만 들린다

청경 : 어?...어, 어....어? 어....이게, 이게 어떻게....

어머니 : (멀리서 다가오며 말하듯) 청경아, 무슨 일이야, 응? 무슨 일 있어?

핀조명이 켜지면, 청경은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쩔 줄 몰라 하고, 청경의 어머니는 무슨 일이 생겼냐는 듯 쟁반과 물주전자를 들고 급하게 뛰어온다.

어머니 :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청경 : 어, 어, 어... 이, 이게...어떻게 된 거지...

어머니 : 아니, 왜 그러는데, 말을 해 봐, 말을.

청경 : (시선은 계속 손에 든 종이에 가 있다) 어머니.

어머니 : 그래, 그래.

청경 : 저보고 면접 보러 오래요.

어머니 : 응? 면접 보러?

청경 : 네, 서류에 붙었다고, 면접 보러 오라고.

어머니 : (안심한 듯) 아이고, 난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잖니.

청경 :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사성전자예요'라고 말한다)

어머니 : 응? 뭐라고 한 거니?

청경 : (역시, 작은 목소리로 '사성 전자요'라고 말한다)

어머니 : 안 들려, 좀 크게 말해봐.

청경 : (크게 소리를 지르며) 사성 전자요, 사성 전자! 거기서 저보고 면접 보러 오래요.

어머니 : (손에 들고 있는 쟁반과 물주전자를 떨어뜨리며) 사, 사, 사성 전자? 아니, 거기서 왜?

청경 : 몰라요. 제가 서류에 합격했대요.

어머니 : (크게 기뻐하며) 아이고, 잘됐다, 잘 됐다. 호호호호. 청경아,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청경 : 아휴, 어머니, 저 붙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서류만 붙은 건데요.

어머니 : 그래도 그게 아니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서류 시험에서 널 붙여줬잖니. 그 정도면 다른 데는 손쉽게 붙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청경 : 그렇지도 않아요.

어머니 : (청경의 손을 잡으며) 아니야, 잘 했다, 잘 했다. 가만 내 정신 좀 봐. (뭔가 허둥거리며)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너 정장 세탁소에 맡겨야겠다. 어서 줘 봐, 어미가 당장 나가서 드라이 크리닝 맡겨야겠어. 어서.

청경 : (수줍게 웃으며) 네, 알겠어요.

청경이 정장을 어머니에게 건네고, 어머니는 정장을 받아 급하게 무대 밖으로 사라진다.

청경이 관객을 향해 서서 말한다.

청경 :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네요. 원하는 학점, 토익 점수를 겨우 넘겼을 뿐인데, 제가 서류에 합격하다

니. 뭔가 꿈같아요. 아마, 사법 고시 1차에 붙었다는 경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뭐, 아무래도 좋아요. 어쨌든, 사성 전자에 서류가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네요. 뭔가, 조금씩 그 동안 노력했던 걸 인정받는 기분도 들고. 뭐, 합격은 힘들겠지만, 이것도 경험이니깐 면접시험 잘 보고 올게요.

갑자기 들리는 모닝콜 소리에 청경이 무슨 소리냐는 듯 당황하는 듯한 연기를 한다. 그리고 무대 밖으로 나갔던 어머니가 정장을 들고 들어온다.

어머니 : 일어났니?

청경 : (당황한 듯) 네, 네?

어머니 : 애 좀 봐, 오늘이 면접 날이잖아. 벌써 준비는 다 한 거야?

청경 :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아, 네, 네.

어머니 : 녀석, 그래도 면접 날이라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는 다 했네.

청경 : (관객을 향해 말한다) 오늘이 면접날이라네요. (어색하게 웃으며) 시간이 참 빠르네요, 하하.

어머니 : 자 입어봐라.

청경 : 네, (웃을 주섬주섬 입는다)

어머니 : (넥타이를 매주며) 그래, 가서 실수하지 말고, 그냥 네 평소대로 해. 말 잘 하고, 주눅 들지 말고. 그리고 저번에 이 어미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말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래, 네 아버지도 너처럼 대쪽 같은 분이셨어. 살아생전에 원망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네 아버지야말로 좋은 사람이었지. 말 그대로, 좋은 사람.

(넥타이를 매고, 청경을 가슴을 한 번 양손으로 툭 친다) 가서, 잘 하고 와, 아들.

청경 : 네, 어머니. 비록, 오늘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곧 취업해서 어머니 고생 그만 하게 해 드릴게요.

어머니 : 그래, 갔다 와라.

청경 : 네, 어머니

청경이 어머니께 꾸벅 절을 하고 핀 조명 밖으로 나간다. 그 순간, 조명은 전체 조명으로 바뀌고, 원래 조명이 비추지 않았던 곳엔 면접 대기자들이 관객을 바라보며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다.

청경은 의자 맨 끝에 가서 앉는다.

직원 : (서류 뭉치를 쳐다보며 무대 좌측에서 중앙으로 걸어 들어온다) 약 5분 후에 면접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서류를 한 장 넘기고는) 이학벌씨?

이학벌 : (긴장된 자세로 앉아 있다가, 이름이 불리면 번쩍 손을 든다) 예.

직원 : 이학벌씨? 칼텍 출신이세요?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

이학벌 : (뿌듯한 미소를 짓는다)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겨우 졸업만 했습니다.

직원 : (고개를 끄덕이며 한두 걸음 걸어간다. 서류 한 장을 다시 넘기며) 황연줄씨?

황연줄 :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예.

직원 : (뭔가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아, 그러시구나. 혹시, 앉아 계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하하.

황연줄 : 괜찮습니다.

직원 : (뭔가 생각난 듯) 혹시,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황연줄 : 아뇨, 전 원래 별다방 커피 아니면 안 마셔서.

직원 : (살짝 당황한 듯) 아, 네, 죄송합니다.

황연줄 : (건방지게)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일 보세요.

직원 : (연신 굽실거리며) 아, 예. (두어 걸음 더 걸어와서 서류 한 장을 다시 넘기며 김청경 앞에 선다) 김청경씨?

청경 : (살짝 주눅 든 표정으로) 네.

직원 : (뭔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 음... 뭐, 면접 잘 보세요.

그 때, 무대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목소리 : 다음 면접조 들어오세요.

직원 : (알았다는 듯) 자, 모두들 일어나서 절 따라오세요.

이학벌, 황연줄, 김청경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들고 제 자리에서 걷는 척을 한다.

감독관 한 명이 걸어와 무대 중앙 좌측에 의자를 놓고 측면이 보이도록 앉는다.

이학벌, 황연줄, 김청경은 관객을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의자를 놓고 앉는다.

감독관은 가만히 서류를 뒤적이다. 그리고 이내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바라본다.

감독관 : 일단 가볍게 자기소개부터 해 볼까요? 가장 왼쪽에 있는 이학벌씨 부터.

이학벌 :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예, 저는 서울의 과학고를 나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 들어가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워낙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라 그들과 경쟁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재학 중에 경제학 수업을 여러 개 들으며, 세계 경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관 : 그래요, 칼텍 졸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평균 학점 3.7이면 굉장히 좋은 점수로 졸업했군요.

이학벌 : (당당한 표정으로) 유학 중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부합니다.

감독관 : 그래, 알겠어요. 그럼, 다음 황연줄씨?

황연줄 : 네, 저는 서울에 있는 공공대학 공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감독관 : (더 할말이 없냐는 듯) 응? 그게 끝인가요?

황연줄 : (당당하게) 네.

감독관 : (다시 한 번 입사지원서를 보더니, 깊은 침음성을 흘리고는 이해가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음... 그렇군요. 그래요, (고개를 들어 청경을 바라보며) 다음은, 맨 끝에 앉아 있는 김청경씨.

김청경 : 네, 저는 서울의 왕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도전했지만, 끝내 원하는 결과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와 막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에 대해, 그리고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바라는 기업과 기업 스스로가 생각하는 비전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기업은 그 시스템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의 시선 역시 중요하며, 그러한 시선을 배울 수 있는 알바 같은 일도 매우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관 : (작게 웃으며) 귀변이예요.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사랑받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기업이 만든 제품을 살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죠.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 토론을 시작해보죠. 주제는...

청경의 나레이션이 시작되면, 무대 위의 사람들은 말없이 마음으로 영어 토론 등을 연기한다.

나레이션 : 사실, 전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막 뱉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굉장한 연줄이 있는 것 같아서 주눅 든 탓도 있었어요. 암튼 그 날, 자기소개에 이어 영어 토론부터, 상황을 가정한 해결책 제시 면접까지 저는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면접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면 또 얼마나 많은 회사들에 지원서를 넣어야

할지를 생각하며 어서 이 자리가 끝나길 기도했었습니다.

나레이션이 끝나면, 감독관의 대사가 시작된다.

감독관 : 그럼, 마지막으로 지원자 분들께 하나만 더 물어보죠. 만일, 여러분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당장 여러분은 애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A 아니면 B. A를 결정하면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오게 되지만,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B를 선택하면 법을 지킬 수는 있지만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이학별 : (자신있게 손을 든다) 당연히, A를 선택하겠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추구입니다.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한다면, 그건 옳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물론 지켜져야 할 가치이지만, 현대의 경쟁 사회에서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 세이칸 대학 경제학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자면, 현대 경쟁사회에서 사소한 과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법을 지키고, 대신 다가온 기회를 살리지 못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빠르게 쇠퇴하여 채 20여년을 넘기지 못하고 파산했다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를 보더라도, 요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것은 법이 아닌, 경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연줄 :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부로부터 규제를 당하겠지만, 대부분의 규제나 과징금은 실제 법을 어김으로써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작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법을 지키기 보단, 수익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관 : 그렇군요. 김청경씨는 어떻게 생각하죠?

청경 : (우물쭈물하며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생각을 굳힌 듯)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경의 말에 지원자들이 고개를 내젓거나, 비웃음을 보인다.

청경 : 물론,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존재 가치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수익 논리로만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무정부주의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면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가정은, 다시 말해 해서는 안 될 거래나 계약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한 번, 혹은 두세 번 이런 식으로 법을 어겨가며 수익을 얻을 순 있겠지만, 그 자체가 기업으로서는 미래에 닥치게 될 잠재 위험을 키우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을 지켜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더 큰 수익을 실현시키는 방법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기에, 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관 :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생각을 정리한 듯) 네, 그래요.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면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자들 : (고개를 숙여 절하며) 수고하셨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감독관이 퇴장하면, 지원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는 밖으로 나간다.

청경은 홀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고, 조명이 핀조명으로 바뀌어 청경을 비춘다. 청경은 관객을 바라보며 말한다.

청경 : 결국, 이렇게 됐네요. 이번 면접도 결국 실패했어요. 사실 조금 전에,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법을 어겨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순 없었어요. 그건 옳지 않으니까요. (홀가분한 듯 한숨을 쉰다) 그래요.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지개를 펴며) 이젠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다른 곳에 원서나 넣어야겠어요.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네요.



무대가 암전된다.

6장.

1장에서와 같이 포장마차에서 청경과 친구1이 같이 술을 마신다.

친구1 : (술을 따라주며) 너, 사성전자 면접 결과는 나왔어?

청경 : (어이없다는 듯) 내가 되겠냐? 난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몰라.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었고, 그냥 막다른 길이니깐 원서를 넣어봤던 건데, 그냥 운 좋게 면접까지 본 거야.

친구1 : 아무리 운 좋아도, 사성 전자 면접은 아무나 못 봐. 넌 고시 공부한 놈이 무슨 토익이랑 학점이 그렇게 좋냐? 참내.

청경 :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네가 안 좋은 거겠지. 근데, 너 취업은 어떻게 됐어? 경섭이가 알아봐 주기로 했다며.

친구1 : (헛웃음을 흘리며) 야, 말도 마라. 경섭이 회사에서 잘렸다.

청경 : (화들짝 놀라며) 뭐? 왜 잘려? 뻥 있다며.

친구1 : 회사 감사팀에 걸렸어나봐. 그, 경섭이 취업에 도움 준 그 사람도 같이 옷 벗었대.

청경 : (고개를 저으며) 네 취업도 물 건너갔네.

친구1 : 차라리 잘 됐어. 나도 개한테 아양 떠는 거 짜증났거든. 그땐 내가 어떻게 됐나봐. 원래 그런 행동 하는 사람들 보면 극혐이라고 욕하던 내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취업이 진짜 무섭긴 해.

청경 : 그래, 네가 이제라도 정신 차렸다니 다행이다. 너도 나처럼 열심히 원서 내 봐. 그럼 누가 아냐, 면접 오라고 할 지. 그러다 보면, 한 군데 정도는 붙겠지.

친구1 :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하는 거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청경 : 원래 세상살이라는 게 어이가 없는 거다.

친구1 : 지금 사성전자 면접 봤다고 나한테 잘난 척 하는 거냐?

청경 : (웃으며)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잘난 척 하겠냐, 하하하하.

친구1 : (같이 웃으며)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기필코 너보다 먼저 취업해서 꼭 너한테 잘난 척 하는 모습을 보여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청경 : 제발 그래라, 좀. 허구한 날 술 먹자고 부르지만 말고.

그때, 갑자기 핸드폰 벨 소리가 울린다.

친구1 : 네 전화 아니냐? 전화 왔잖아. 받아, 어서.

청경 : 아, 내 전화였나? 핸드폰이 망가져서 요 며칠 AS 맡겼더니, 벨소리가 바뀌었네.

청경이 전화를 받는다.

청경 : 여보세요?

전화통화자 : (이하, 목소리만 들린다) 여보세요? 김청경씨 핸드폰인가요?

청경 : 예, 제가 김청경인데요. 누구시죠?

전화통화자 : 예, 전 사성전자 인사팀 김모모 대리예요. 어제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지금 전화드렸어요.

청경 : (화들짝 놀라며) 네? 사성 전자요? 아니, 왜 저한테...

전화통화자 : 축하드려요. 사성전자 신입사원 선발모집에 최종 합격하셨어요.

청경 : 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 바람에 친구1이 놀라 뒤로 넘어진다)

전화통화자 : 다음 주 월요일 본사에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까 늦지 말고 오시구요.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통보가 갈 거니까 참조하세요.

청경 : (말을 잊지 못하며) 아...아....

전화통화자 : 그럼, 수고하세요.

청경 : 아, 예, 수고하세요! (90도로 깎듯하게 절한다)

친구1 : (넘어졌다가 바닥에서 일어나 자리에 앉으며) 너 미쳤냐? 누구 전화데 이 난리야. 혹시 대통령 전화 받았냐?

청경 : 친구야! (갑자기 친구1을 껴안는다)

친구1 : (당황하며) 너, 너, 왜 이래, 취했어?

청경 : 친구야, 내가 사성전자에 합격했대.

친구1 : 뭐? 뭐? 방금 뭐라고 했어?

청경 : 나, 합격했다고. 이젠 사성전자 신입사원이라고!

친구1 : 대박! 진짜? 농담 아니고? 전화 번호 확인해봐, 얼른. 누가 장난 전화 한 건지 확인 해봐, 빨리.

청경 : 아냐, 임마. 진짜야.

친구1 : 진짜? 야, 축하한다, 자식아. 하하하하하 (둘이 얼싸안고, 함께 웃는다)

청경 : 말도 안 돼.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친구1 : (청경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잘됐다, 청경아. 근데, 너 대체 어떻게 붙은 거냐?

청경 : (머리를 긁적이며) 글썄, 나도 좀 이해가 안 가네.

친구1 : 혹시... (의심의 눈초리로 청경을 보며) 너도 뻥 있냐?

청경 : (어이없다는 듯) 아니, 내가 무슨 뻥이 있겠냐. 너도 알잖아. 우리 집 아무 것도 없는 거.

친구1 : 하긴 그렇지.

나레이션이 나오면 청경과 친구1은 말없이 마임으로만 연기한다.

나레이션 : 전 결국 사성 전자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고, 한참 뒤에야 그 때 당시 면접관으로 오셨던 팀장님과 회사 라운지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팀장님께선 절 기억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절 뽑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했던 저의 말이 팀장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는 머리 좋고, 뛰어난 직원이 아닌 정직하게 회사를 위해서 일 할 사람이라고요. 머리 좋은 인재는 언제든 찾을 수 있지만, 정직한 사람은 찾기 힘든 세상이기에 주저 없이 절 선택했다고 하시더군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고. 그러니 처세술을 익혀야 한다고. 하지만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쉽고 편한 길만 찾아 가려 한다면, 언젠간 길을 잃게 되고, 급기야는 방향마저 잃을 것입니다.

결국 가장 빠른 길은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직과 양심에 따라,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길로 걸어간다면 길을 잃을 염려도, 방향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